

문화특리

김제보건소, 대장암검진 홍보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농촌마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장암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대장암검진'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여 대장암 예방지식을 향상시키고 수검율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특색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 관내 25개 보건진료소는 관내 주민 및 이용주민의 50세 이상 명단을 각 보건진료소 별로 파악하고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각 마을회관에 대한 통을 비치하여 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마을별 경로당 방문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장암 검진홍보 및 보건교육, 대변통을 배부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대장암 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대장암 검진 활성화사업을 통해 국가 5대 암검진의 수검을 향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과도한 의료비상승 억제와 조기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보건소 관계자는 "25개 보건진료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NH농협부안군지부 농촌일손돕기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유금용)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 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붐을 조성하려고 농사준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11일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유금용 지부장을 비롯하여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순식) 임직원, 농가주부모임 회원 20여 명과 함께 보안면의 농가를 찾아 고구마 심기 작업을 펼쳤다.

유금용 부안군 지부지부장은 "고구마 순의 발아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보면서 농업 미래에 대한 역동성을 배우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 오디균핵병 방제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발생하고 오디 균핵병의 사전방제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의 오디 생산농가는 594농가 165ha로,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물이다.

기술센터는 "오디 수확시기에 해마다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에서 균핵병이 발병해 안정적인 오디생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디 균핵병은 전년도에 병에 걸린 오디가 땅에서 월동한 후 이듬해 봄철에 버섯(자낭균)이 자라면서 자낭포자를 날려 꽃을 피울 때 화기에 침입하는 병이다. 특히 '과상2호'와 '대성봉'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술센터는 "방제는 눈이 트고 잎이 피는 시기에 맞춰 4월 중·하순 경 전용약제인 톨신엠 또는 글타입수화제를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함으로써 균핵병 방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시비 3천600만원을 더한 1억3천800만원을 들여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정읍시 시민문화예술 갈증 푼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00만원 지원 받아

정읍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3천600만원을 더한 1억3천800만원을 들여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4개 우수공연인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툰기회' (6. 4.) ▲창원국악원연극단의 '박애리 팝핀 현준과 함께하는 상상 그 이상' (7. 9.) ▲서울타악기 앙상블의 '놀자9. 3.) ▲태해신 카르마프리 무용단의 '사인아웃, 휘' (공연 일 미정) 이다.

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시와 한국예총정읍지부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 협교육'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정읍시체육회관에서 시민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공예와 도예체험, 문학교육 등 2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수시로 우수작품을 초청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문연이 국립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우수작품 중 시민 설문 등을 통해 보고 싶은 공연으로 추천받은 13개 작품을 신청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봄철 수리시설 현장점검

가뭄대비 용수대책 적극 추진

김제시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가뭄 대비 용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승복 김제시장은 지난해 강수량(평균 896mm)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원활한 영농을 위해 12일 관내 저수지 준설 등 수리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 및 보수 13곳을 완료하였고 6곳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 있으며 6억원을 들여 농업용 중형 관정 56공을 완료하

였고 11공을 현재 진행중이 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정비를 정비하는 등 영농철 이전에 농업용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3월 한 달간 저수지·양수장·취입보·대형관정·양수기 등 수리시설물을 일제 점검했다.

임성근 건설과장은 "가뭄피해가 없도록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배수로, 농업용 관정 정비와 개발 등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104곳, 양수장 3곳, 취입보 11곳, 집수암거 18곳, 대형관정 141곳, 양수기 138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서, 개암동 벚꽃길 교통안전 안전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상서면 감교리 개암사 벚꽃 가로수길에서 열린 제1회 개암동 벚꽃축제 관공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장에 약 3천여 명이 벚꽃 나들이에 나서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었으나 지역방범대와 협조, 사전 교통대책 수립, 관광객은 물론 주민편의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강현신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을 부초갑처럼 모시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공모 선정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선정됐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마을·지역·전국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76개 단체가 응모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의 '동기종기 생활문화축제'가 최종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4~5월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나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2회에 걸쳐 펼쳐지는 이 행사는 Spring, 소박한 일상에서 문화간성을 깨워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첫 행사는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화체육관광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음악·무용·전통분야 동호회의 발표, 한지·비즈·압화·리본·가족공예 체험, 젊은 엄마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프리마켓, 벼룩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과 생활문화예술인이 함께 할 계획이다.

김진도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이사장은 "지역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차적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단순 향유를 넘어 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 이어져 생활속 문화체감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은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시설 개선

부안군, 탈취기 등 설치

부안군은 제2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악취율이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경관 조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향기 나는 조경수를 식재했다.

이를 위해 군은 악취율이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해 탈취기 및 탈취배관 교체, 감시제어 시스템 보완, 유량조정 조산기관 설치, 슬러지 저류 조 보강, 혐질물 종합처리기 설치 등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및 작업환경 위생,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군은 환경 및 경관 조성 정비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주변 및 완충녹지구역 내에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은목서, 구글목서, 수수꽃다리, 매화나무, 산수유 등 향기 나는 조경수를 식재해 농공단지 이미지 변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과학적 관리와 각 업체의 철저한 전처리 공정을 통해 새만금 유역수질개선과 악취유발 폐수의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을 최소화 해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the brand name 'Mulberry Wine', the slogan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details about the wine's quality and availability. It also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